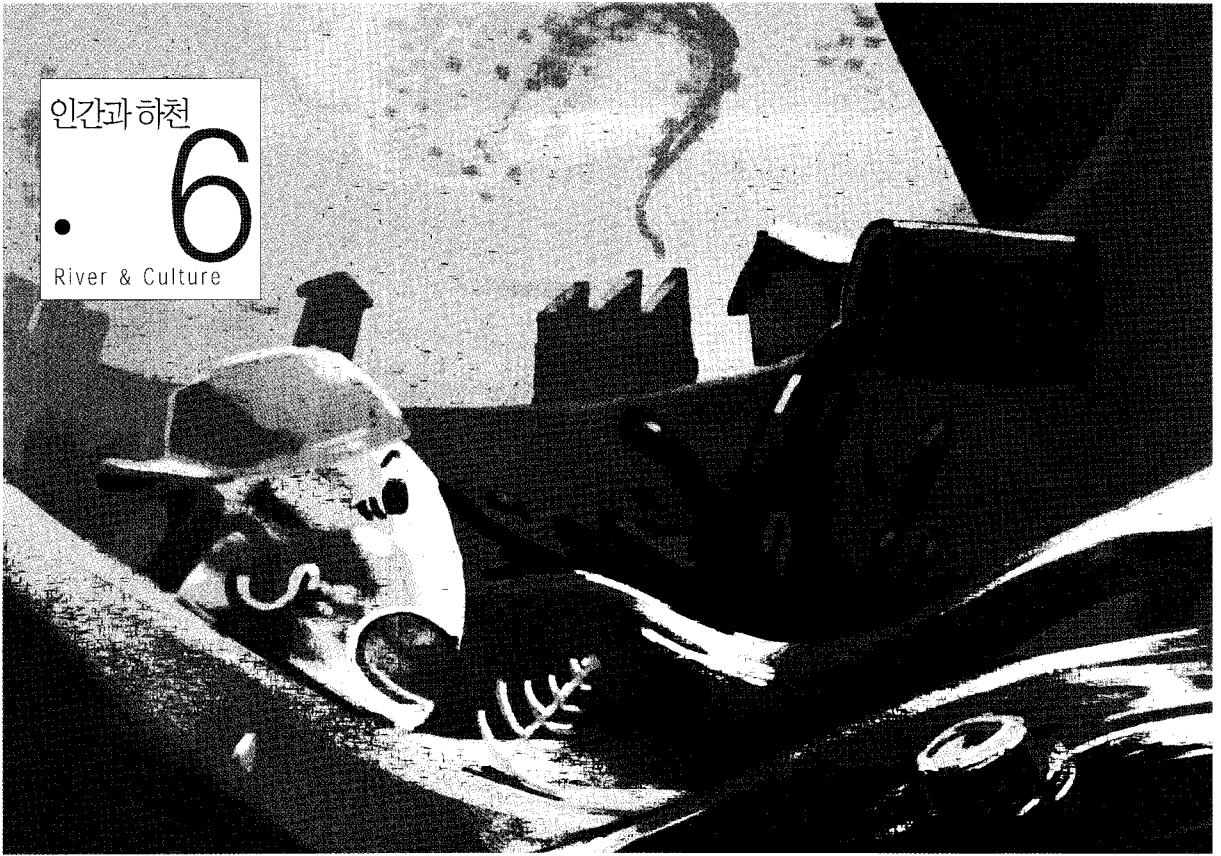


인간과 하천

6

River & Culture



김정현 | 동화작가  
(4201708@hanmail.net)

하천과 동화

## 태백수와 설악수

태백산 산골의 태백수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아리수가 있다는 서울로 가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서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집도 많고 온갖 볼거리가 많다는 것을 태백수는 진작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 간다간다하고 베풀고 오던 참에 이번에 길을 떠난 것입니다.

태백수가 사는 산골은 하늘을 가리는 높푸른 나무와 온갖 풀이 땅을 덮듯 하고 있는 심심산골입니다. 매일 매일 들리는 소리는 바람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소리 그리고 산짐승들 울음소리였습니다. 태백수는 가파르고 꾸불꾸불한 산길을

한참 돌고돌아와서 평퍼짐한 들이 보이는 산자락 시냇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구리랑 피라미들이 모여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냇길 주변에는 물억새풀이 무성했습니다. 태백수는 시냇길을 지나면서 길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도 더 넓게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도 시원하게 넓었습니다.

얼마를 갔을까? 태백수는 넓은 호수를 만났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는 사람들이 충주호라 불렀습니다. 호수에는 큰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람 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람은 여러 곳을 다니며 구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백수는 이 호수를 한참동안 둘러보았습니다. 자기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수에는 큰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붕어랑 잉어랑 메기랑 가물치 등등이었습니다. 호수 위는 청둥오리가 한가롭게 둥둥 떠있기도 했습니다. 호수 위를 나르는 물새들도 보였습니다.

태백수는 더욱 넓은 물길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부르는 강이었습니다. 강변에는 갈대숲이랑 능수버들이 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강변을 끼고 있는 산자락에는 키 큰 소나무가 뻗뻗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나무 위에는 학때들이 긴 날개를 퍼덕이며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하는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변을 낀 더 넓은 들판도 보였습니다. 논이랑 밭이었습니다. 논에는 사람에게 쌀을 주는 벼가 싱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밭에는 온갖 채소가 짙은 녹색을 띠고 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풍경을 본 태백수는 강 물길 따라 얼마 안가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쇠취한 냄새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 뭔가 부유물이 많이 떠 있고 뿌연 것을 보았습니다. 부유물은 뭔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태백수는 한참을 가도 그런 냄새와 뿌연 물길이 여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태백수는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변 좌우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에는 비눗방울 같은 거품도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쏟아 붓고 흘러 보내는 오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수는 더러워진 물을 말하는데 여기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난 후 내버린 물이나 빨래, 세수, 목욕 후의 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

나 소를 키우는 목장의 오물과 공장의 폐수 같은 것이 섞인 물을 말합니다.

태백수는 그런 오수 같은 것을 모릅니다. 태백산의 산골에는 더러운 물이란 아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오면 그냥 물을 떠 마시기도 합니다.

이윽고 태백수는 아리수가 있는 관문에 이르렀습니다. 관문이란 것은 들어서는 입구쪽이란 말입니다. 그 관문은 서울 사람들이 부르는 팔당이란 호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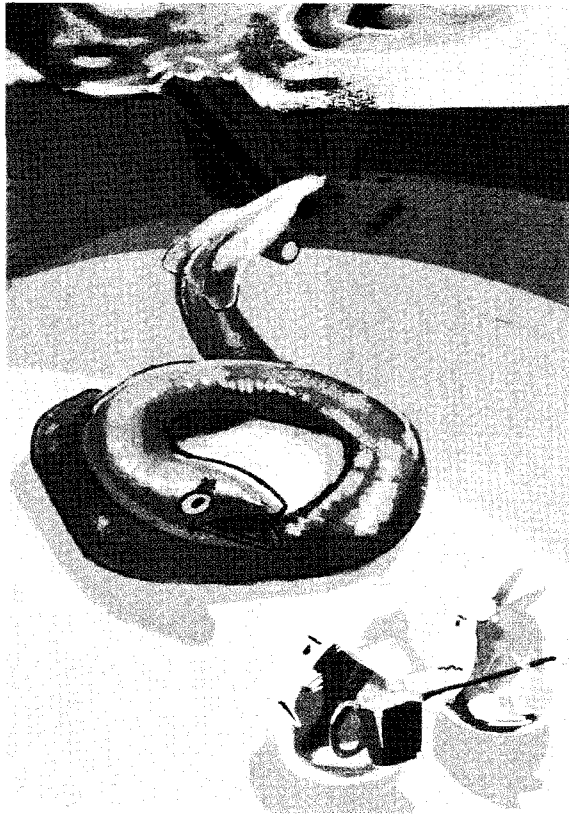
태백수는 이 팔당에서 역시 멀리 설악산에서 왔다는

설악수를 만났습니다. 설악수도 마찬가지로 아리수가 있는 서울로 구경 오는 길이라 했습니다. 설악수는 팔당까지 올 때 두개의 큰 호수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설악수가 보았다는 호수는 소양호, 의암호였습니다. 그런데 설악수가 오는 강물길 주변에는 넓은 들판은 볼 수가 없고 산들이 가까이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것만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뱉듯이 했습니다.

“여기 울수록 더럽고 냄새나곤 했어!”

태백수도 그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무슨 냄새지 쿵쿵하게 났고 거품 같은 게 떠 내려 오고 바닥에는 자갈 같은 게 안보이고 진흙만 잔뜩 쌓였어.”

설악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다가 빙어들한테 들었는데 아리수가 있는 그곳에 가면 고기들이 병들은 듯 모두가 얼굴색이 누렇게 뾰다고 했어.”

태백수는 “그런 말 듣고 여기까지 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설악수는 “혹시나 하고 온 거야. 어쨌든 서울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정말 그런 모습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 알 것이야.”

둘은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광나루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뱃장어를 만났습니다. 뱃장어는 힘이 세다고 했는데 만난 뱃장어는 꼬리치는 동작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흐느적흐느적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백수는 뱃장어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 아프니?”

“아니야, 잠을 못 자서 그래.”

“잠을 못 자다니?”

“저 바닥을 봐. 사람들이 버린 온갖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

지 않니? 철근이랑 나무기둥이랑 콘크리트 덩어랑 말이다. 우리가 쉬고 잠자고 하는 곳은 모래가 깔린 바닥이고 자갈이 깔린 바닥이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 그런 곳이 있니? 그뿐인 줄 알아? 저쪽으로 보라. 무슨 구멍 같은 데서 시꺼먼 것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 거기다 구역질 날만큼 냄새도 나지 않아. 정말 못살 지경이야. 옛날부터 이곳은 우리 조상이 터를 잡고 살아왔고 그리고 깨끗한 곳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어디로 다 떠나버리고 나하고 몇 명만 남았어.”

이런 말을 하는 뱃장어는 슬픈 낯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뱃장어는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 다 사람들이 했어! 사람들이 우릴 못 살게 더럽힌 거야!”

태백수와 설악수는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우리가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더럽히는지 모르겠다…….’

태백수와 설악수는 아리수가 있는 곳으로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오염이 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으로 뒤돌아갔습니다. 🌍

※ 참고 · 아리수는 옛날 서울의 한강을 말합니다. 이 글을 쓴 저지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물의 오염을 알게 해주지는데 두었습니다. 태백수는 강원도 태백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고, 설악수는 강원도 설악산에서 내리는 물을 칭하는 말입니다.